

신 육종기술 판결로 여론 들끓는 EU

파리지사

EU사법재판소, NBT기술의 산물은 GMO라고 판결

- 지난 7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새로운 생명공학 육종 기술에 의해 생산된 식품이 GMO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의 발표를 뒤엎고 비자연적 과정이나 기술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유기체는 GMO(유전자 변형 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간주되며, 새로운 육종 기술인 유전자 재조합 NBT(New breeding techniques) 역시 EU의 엄격한 규제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기술이 GMO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 그러나 'Creso 밀'과 같이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 GMO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품목은 규제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Creso 밀"은 1970년대 초 이탈리아 ENEA 연구소에서 중성자와 감마선의 결합에 의해 유발된 돌연변이를 통해 얻어진 품종으로 GMO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식량문제 해결의 기대주로 떠오른 신 육종기술

- 기존의 식량자원을 보다 양질의 유기체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량 생산할 목적으로 시작된 '육종' 기술은 유전자변형 GMO와 새로운 육종기술인 유전자 재조합 NBT로까지 발전해왔다.



- 유전자 재조합 NBT는 이상 기후에 대한 대비책과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유전자 재조합과 같은 최신기술은 새로운 식물형질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입할 수 있어, 기존에 농부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품종을 제공하는데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걸리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세계미래보고서 2055>에 따르면 2050년 지구 인구는 97억 명에 달하며 농작물 수요는 100~11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과 패턴이 작물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각계의 엇갈리는 반응

-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의 각 단체와 기업 등은 엇갈리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풍부한 식품원료와 가뭄·질병에 저항력이 강한 생명체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온 생명공학업계에서는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EU의 규정이 식량문제 해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럽의 생명공학은 퇴보하게 되고 제3국가로의 농산물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그러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자유로운 개발 방식이 자연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반색하고 있다. 독일의 스펜자 슈츠(Svenja Schulze) 환경장관은 “환경과 소비자 보호에 좋은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유럽의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NON-GMO(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라벨이 표시된 제품들

- 한편 이탈리아 농림식품(Mipaaf) 농업연구 및 농업경제 분석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에 대한 ‘유전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2,100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

- 유전자변형작물(GMO)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 지 17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중지부를 찌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책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이지만, 소비자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로 모아지고 있다.
- 식품을 선택하는 최종 소비자는 GMO의 명확한 표시를 원하고 있고 GMO 표기가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현지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